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신문방송학과	이름	장XX
파견국가	헝가리	파견도시	부다페스트
파견대학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파견기간	1학기(2019년도 가을학기)
귀국여부	귀국완료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해있으며 규모는 매우 작은 느낌이었다. 예술 계열과 일반계열이 캠퍼스 개념으로 나뉜다. 일반계열 기준 건물 2개로 이루어져있다. 가운데 작은 들판과 벤치들이 있고 분위기는 자유롭고 좋다. 작은 트럭 비슷한 것도 한 두개 있어서 공간시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다. 주 건물 1층에 카페테리아에서 학식을 먹거나 도시락을 먹을 수 있고 매점이 하나 있어 간단한 스낵과 싼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종종 카페테리아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교수와 학생이 면담 등 수업 관련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p> <p>일반계열 캠퍼스는 완전 중심가 기준 대중교통으로 15~20분, 국회의사당 기준 30분 떨어진 곳에 있다. 학교 바로 옆에는 이케아가 있고 큰 쇼핑몰 2개가 있어서 가끔 필요한 것이 있거나 심심할 때 구경하고 집에 가기 좋다.</p>

2019-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일단 기본적으로 렉처는 수업을 참여하지 않고 시험만 패스해도 된다 하지만 시험에 대한 정보, 친구 사귀기 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나가는 걸 추천한다. 세미나는 한 학기에 3번 빠질 수 있다. 그 이상 빠지면 F다. 미리 학과랑 꼭 상의하고 학답을 받고 가야한다. 그래야 학점인정도 수월하게 된다. 나는 상의만 하고 가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학점인정이 많이 되었다.(유럽학점인정체계 꼭 확인하고 가시길)</p> <p>가끔 프린트를 해야할 일이 있는데 외부에서 프린트하면 한국보다 비싼 것 같았다. 학생센터에서 프린트 토큰을 받아서 도서관에서 할당량만큼 무료로 사용가능하다.</p> <p><i>Representation Theory</i> - 교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심, 상징적인 무엇, 사회에서 정해진 암묵적 약속, 기호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수업이다. 중간, 기말은 없고 파이널 레포트만 있고 주제 자유에 교수님과 주제를 상의할 수 있다. 비교적 편한 수업이지만 내용이 어렵다.</p> <p><i>Hungarian language</i> - 헝가리어를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헝가리어 배우겠다고 헝가리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했지만 마지막 수업 3회를 남겨두고 시험 볼 자신이 없어..그래도 색깔이랑 사물 이름정도는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나름 쪽지시험도 -1,-2이렇게 틀리고 했지만 문법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동양인이 거의 없다. 끈기가 있고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도전해볼만 하지만 정말 복습 잘하는 것을 추천한다.(주2회수업임)</p> <p><i>International protocol and etiquette</i> - 교수님들 중 가장 영어 발음과 영어 관련해 모든게 완벽한 것 같았다. 수업은 영상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맞는 대처법 등 예절과 관련한 새로운 것들을 팀별로</p>

대화하도록 한다. 그 후 팀에서 한사람이 대표로 발표를 한다. 교수님이 매우 착하시고 동양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따로 발표를 부탁받기도 했었다. 부담스럽지 않고 간단히 앞에서 발표하는 느낌으로 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려고 하고 수업도 시험도 다 만족스러운 강의였다. 추천한다.

Creative communication - 비추합니다.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독해와 쓰기 능력을 기를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들었던 저에게는 별로였습니다. 교수님 나이도 있으시고 되게 이상한 것에 집착하십니다. 그래도 이 수업에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Food&Beverage management - 2주에 1번 수업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12시 수업이다. 뻥센 듯 뻥세지 않은 수업이며 중간고사는 객관식이고 기말고사는 구두시험이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교수님이 너그러우셔서 패스는 겨우 받을 수 있었다.

Advertising and media planning - 렉처1시간 30분, 세미나 1시간 30분으로 연결된 강의로 6크레딧짜리 강의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며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와 레포트가 있다(10장정도, 조금 뻥셀 수는 있지만 다른 과목들도 널널했어서 만족) 렉처는 이론 강의를 해주시고 세미나에서는 매주 수업시간에 새로운 광고를 보여주시며 팀별로 이야기하고 발표하게 한다. 수업시간에도 자유롭게 교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입 밖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했다. 마지막 레포트 제출에 있어 교수님이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시는 점이 가장 좋았다. 나는 50점 만점에 48점을 받았다. 교수님께서도 내가 첫 번째 한국학생이라 의미 있었다는 말도 해주셨다. 영어를 버벅거릴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이해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교환학생이 많은 학교인 것 같다. 거의 첫 행사는 출국 전 미리 수요조사를 했던 웰컴데이였다. (출국 전에도 메일 잘 확인하시길 바람) 따로 5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했었다. 매우 가치 있고 꼭 가야한다. 가장 친한 친구도 웰컴데이 때 친해진 친구이다.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 차타고 풍경도 보고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보며 식사 및 파티를 했다.</p> <p>오리엔테이션은 날짜를 나눠서 본인이 해당하는 날에 참가하면 된다. 교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있는 것 같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친구들이 말해줘서 알기도 했다. 특히 선착순으로 약 50명 정도씩 모집하는 원데이트립은 매우 가성비가 좋고 공짜일때도 있다.(예, 근교여행 식비 기타 비용 포함 8000원, 오스트리아 비엔나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가기 무료) 개인 여행일정 및 기타 일정이 없다면 참여하기 추천한다. 새로운 외국인 친구들과도 친해질수 있는 기회도 되고 외국인들과 여행을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수도 있다. 신청은 student office에서 공지된 정해진 시간 날짜에 한다.</p> <p>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요가, 폴댄스, 축구 기타 등등 혼자 오는 친구들과 또 친구가 되고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가 정말 좋았다. 9월 3일에 입국해서 10월 말경에 처음으로 우산을 샀다. 그 전에도 한번 비가 왔었는데 귀찮아서 맞고 다녔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안개가 끼서 국회의사당 뷰가 안보였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있었을 때는 11월말 12월 초에 몇 번 정도였던 것 같다. 유럽은 11월 초부터 비가 되게 많이 온다. 그래서 11월 이후 여행은 날씨를 잘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일기예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행을 미루기보다 우산 등 준비물만 잘 가지고 여행 할 수 있는 만큼 하길 바란다. 나 같은 경우는 여행만 한달 이상인데 5일정도 비가 왔던 것 같다. 일교차가 있으니 옷은 잘 챙겨서 다니면 좋을 것 같다. 12월 말까지는 한국보단 따뜻한데 1월이 되었을 땐 한국과 비슷하게 추웠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헝가리, 체코 동유럽은 치안이 좋은 것 같았다.</p> <p>하지만 다른 유럽은 정말 항상 조심해야한다. 프랑스 갔을 때 나보다 어린 여자애들한테 소매치기 당할 뻔했고 소매치기, 소지품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다니다가 마지막 여행지인 스페인에서 가방을 낱강도 당해서 추격전을 벌였다. (어차피 못 잡고 위험하기만 하니까 이성적으로 따라가지 말 것,, 물론 그 상황이 된다면 달릴 것 같지만..매우 위험하다) 그 다음날에는 사건당일 어두운 밤에 낯선 남자의 손길이 무서워서 여행 일정을 취소할 정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자.</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모든게 다 좋았으나 숙소 때문에 교환학생의 기억이 매우 안좋다. 생각보다 머리에 똥찬 친구들이 많다. 말 안통하고 기숙사 관리자도</p>

나몰라라한다. 스트레스 주의하시길.. 기숙사 살면 나름 인싸가 될 수 있다. 친구는 진짜 많아진다.

학교에서 제시해놓은 기숙사는 2개이다. 시내근처와 학교 근처

(학교와 시내기숙사와의 거리는 지하철로 15분 도보 5분)

나는 시내근처 기숙사를 했다. 사실 집을 알아보고 하는 것에 대한 귀찮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무서움에 그냥 기숙사를 선택했다. 학교 글로벌빌리지에서 3년 동안 살았고 그 생활에 매우 만족했었고 함께 사는 걸 좋아하고 무딘 사람이었다. 스트레스도 잘 안받는 성격인데..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을 3번이나 바꿨다. 처음에 4인실이었다. 죄다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원래 좋아함, 비하하는거 아님) 소지품 너무 많고 내 짐 풀 자리도 없었고 첫날부터 바퀴벌레가 나왔고 냄새도 나고 음식 먹고 난 뒤 정리도 안했다. 친구들은 정말 착했으나 위생상 문제, 영어 사용량 때문에 방을 옮겼다. 다음 4인실은 모로코, 러시아, 이집트 친구들이었다. 룸메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이제 막 고삐 풀린 20세처럼 행동했다. 방에 테라스가 있었는데 매번 친구를 초대하고 클럽을 방불케하는 소음을 매일 정말 매일 만들어냈다. (다른 방들에서도 항의하고 나보고 잠은 자냐고 물어볼 정도로 시끄러웠다.) 새벽 3시에 맨날 일어났다. 이 테라스가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다. 조용해달라고 자야한다고 수업가야 한다고 그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질 않는다. 오히려 인터넷서널한 것이 바로 이거라며 억지만 부린다.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다. 나를 극 예민한 사람으로 여긴다. 진짜 아닌데 정말 억울했다. 애들이랑 싸우고 방도 나왔다. 남자애들은 매일 밤 방에 들어왔고 심지어 내방 샤워실에도 불쑥 들어오더라. 성적 수치심보다는 사람이 층간소음, 이웃과의 불화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수궁하게 되었다. 진짜 화병 걸릴 것 같았다. 지하철 다 끊긴 새벽에 뛰쳐나와서는 알고 지내던 한국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일주일 이상 내 기숙사에서 씻고 짐 챙기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시 그 끔찍했던 때를 생각하기도 싫다. 한국 학교, 헝가리학교에 몇 번을 말했지만 솔직히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 사람들은 실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징징거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헝가리 학교 기숙사 코디네이터와 각종 교직원들은 진짜 어이없으니까 미리

	<p>알고가면 좋겠다.(외부인 출입에 대한 항의를 했을 때 CCTV보면 될 일을 내가 직접 애들 얼굴을 찍어오라고 한다던가, 기숙사니까 남자가 샤워실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던가.. 내방 내 샤워실인데?..기타 등등 말도 하기 싫다 정말로 최악이었다)</p> <p>결국 1달을 남겨두고 방을 또 옮겼다. 몇 달 동안 잠 못 잔거 방 옮기자마자 푹 잘 수 있었다.</p> <p>방크기는 정말 운에 따라 다르다. 같은 가격인데 첫 번째 4인실은 매우 좁았고 두 번째 4인실은 진짜 넓었다. 2인실 진짜 좁다.. 하지않는 것을 추천한다..그냥 두 명 쓴다고 비싼거다. 그럴꺼면 나라면 아파트, 플랫을 알아볼 것 같다. 방 구성은 샤워실, 화장실, 싱크대(요리는 각 층에 정해진 주방에서 가능하며 방에서는 간단한 설거지 및 물품 보관정도), 냉장고, 식탁, 책상과 일체형인 2층침대 이렇게 엮던 것 같다.</p> <p>4인실(220유로) 3인실(260유로) 2인실(280유로)</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장보기 물가가 매우 좋아서 거의 매일 요리해먹은 것 같다. 귀찮을 때는 사먹었다. 사먹는 건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비싸다. 8000원~15000원, 간혹 중국음식을 골라먹는 식당은 4000원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거나 가끔씩 학교 식당을 이용한다. 뷔페 같지만 고르는 대로 양에 따라 돈이 나온다. 4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나왔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13000원정도면 부다페스트 학생 1달 교통권을 살 수 있다. 학생증이 있어야 인증하고 할인받는 것이므로 가자마자 한달권 사지말고 10회권이나 1회권씩 사서 필요에 따라 나눠쓰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p>

	그 먼슬리 패스로 버스, 트램, 지하철 다 탈 수 있고 불시검문을 한다. 걸리면 4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벌금으로 지불해야한다.(학생증 안가지고 다니면 안됨)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00만원 (한국-헝가리 49만원 헝가리-한국 48만원 귀국할때는 짐 추가했음 그것을 포함한 가격임)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삼성화재 49만원짜리 (비자 및 거주증 취득을 위해 그 나라에서 원하는 보장액 같은거 확인하고 하시길 바람)
숙소		약 250유로
식비		한번 장보면 8천원~1만원 돼지목살 500G 기준 4천원정도, 채소와 과일은 무게로 계산해서 딱 하나만 구입가능하며 가격도 저렴

교통비		한달에 13
책값		
기타1		여행경비 (기록해놓은 것은 없으며 개인차 있음) 혼자 4박 5일 여행 호스텔이용 기준, 총 경비 약 25~35만원 함께 여행갈 경우 에어비앤비 사용으로 여행경비 조금 줄어듦
기타2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누가 해주겠지, 누군가는 날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버리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혼자 해결할 일이 많으며 현지 담당자가 내 일에 딱히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다. 그리고 유럽 행정의 매우 느리고 화가 날 때가 많다. 하지만 나한테만 늦게 해주는 건 아니므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늦다 싶을 땐 꼭 물어보아야 한다. 늦게 해결해주는 것에 더하여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자, 거주증을 취득하는데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3개월 지났는데도 우편이 오지 않아 찾아갔더니 약속한 날에서 2주밖에 더 안지났는데 뭘 조급해하냐며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곤 "엇? 근데 너 거주증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ㅎㅎ, 또 안오면 다시 와" 못 받아서 또 찾아갔더니 "우체국에 있는 듯 가봐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결국은 혼자 우체국에 가서 배달 누락된 거주증을 찾아왔다. 출국 한달 반 전에 거주증을 받은 것 같다. 놀랍게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헝가리에서 만난 한국인 교환학생 친구들 또한 나와 비슷하게 직접 이민국 찾아가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겨우겨우 받았다고 한다.

거주증 절대 잊어버리면 안된다. 관리 잘해야한다. 출국 일주일전에 소매치기 당해서 한국 입국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못오고 불법체류자 될 뻔 했다. 여권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었다. 같은 항공사, 같은 경유지로 미리 한국으로 출국한 친구가

거주증 안보여주면 경유지 입국에서 막는다는 경험담을 듣게 되었다. 급하게 출국3일전부터 경찰서 가고 이민국, 한국 대사관, 헝가리 대사관, 항공사, 외교무,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같이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넘겼다. 울고 싶었다. 정말 아무도 안도와주더라..(그 날이 비자 만료일이라서 한국대사관에서는 방법찾는걸 도와주기는커녕, 벌금내고 불법체류자 되실꺼예요~라는 말만 했다.) 무튼 평소 사진 찍는 걸 습관적으로 하던 나는 다행이도 거주증 실물 받은 날 나를 감격스러워서 찍어둔게 있었다. 그 실물 사진과 경찰서 조서, 헝가리 이민국에 가서 부탁부탁 사정사정 다해서 겨우 받아낸 서류 2장을 들고 헝가리를 떠났다. 역시나 경유지에서 20분 넘는 시간동안 나한테 질문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며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제발 다 전화해서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나 할수있는건 다했다며 울기 직전까지 갔다. 우여곡절 속에 경유지 통과하고 한국으로 들어 올수 있었다. 소매치기 한번 때문에 헝가리에서 보내려고 남겨놔던 3일이 순삭되었다. 시간 쪼개서 3일에 거쳐 밤마다 친구들과 인사하고 새벽까지 짐을 싣다. 꼭 한국에서 완전 강력한 휴대폰 목줄?, 손목에 감아서 하는 스프링 같은 도난 방지용을 잘 챙겨오길 바란다.

한국음식은 적당히 챙겨오면 될 것 같다. 국회의사당 주변에 K-mart라는 한인마트가 있다.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이용할만 하다.

국제학생증 한국에서 꼭꼭 발급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17000원밖에 안하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줄 것이다. 입장료, 카페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 esn카드(유럽연합 학생증?)을 만드는 것도 추천한다. 12000원 정도인데 라이언에어를 탈 때 할인이 되고 20kg짐이 무료로 추가되기 때문에 여행 1회당 못해도 3~5만원은 절약될 것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유럽권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을 말하라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내 시간표는 목요일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월요일 오후에 시작하는 나름 주말이 길었다.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가을 약 10일, 겨울 약 10일가량의 공식적 방학을 제공한다. 장기적 여행은 계획 잘 짜서 다니면 정말 알찰 것 같다. 나는 주로 라이언에어나 위즈에어 등의 저가항공을 이용해서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날씨 한 번 확인하고 혼자서 배낭하나 매고 떠나고 했었다. 가끔은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고 혼자였기에 만났을 새로운 친구들, 상황들이 매우 소중하다. 혼자 여행할 때 따로 동행을 구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만나게 된 사람과 식사한 것이 다였다. 하지만 혼자 여행이 익숙하지 않다면 네이버 유랑에서 동행을 구하거나 현지 상황,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지금 생각하면 혼자 정말 겁 없이, 아무 경계 없이 다녔던 것 같은데 적당한 경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꼈고 내 자신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난 몰라, 미안? 모르겠다, 못 도와줘'라는 말 대신 함께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잘 큰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두 번째, 보이는게 다가 아니니까 선부른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셋째, 영어를 꾸준히 갖고 닦아서 내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좀 더 확실히 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다.

우당탕탕 교환학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환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순간순간의 나의 행동에 후회할 땐 있었지만 후회 없는 생활은 한국에서도 불가능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면서 많은 후회하고 또 배울 것이기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곳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느끼면서 정말로 강해졌기에,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긴 했기에, 무조건 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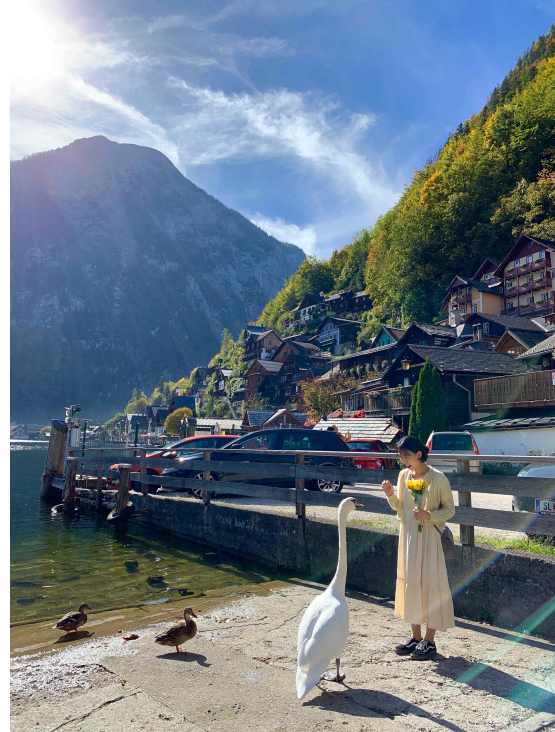
수도에 있는 학교가 가고 싶어서 막연하게 선택한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정말 무지한 상태로 떠났다. 그 당시 수기를 너무 보고 싶었으나 전에 다녀온 분께서 결국은 끝까지 안올려주셔서 수업, 기숙사, 학교 분위기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정보 하나 없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떠났었다. 정보가 없었다는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라서 더 열심히 쓰고 싶고 자세히 쓰고 싶어졌다. 그래서 두서없이 써진 것 같다. 혹시라도 헝가리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교처 선생님께 여쭙보고 연락주셔도 됩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학기 초 친구생일 파티</p>	<p>보고싶을 때마다 본 국회의사당 야경</p>
	
<p>4인실 기숙사 제일 넓은 버전, 문제의</p>	<p>어부의 요새에서 보는 야경</p>

넓은 테라스



첫 번째 혼자 여행(오스트리아)



수업 끝나고 집가는 길